

■ 버냉키 발언 후 주간 주가 전망

1,200~1,300선 박스권 장세 속 조정

중동 분쟁·미국금리 등 악재 많아

인터넷·게임·콘텐츠 관련주 유망

면서 기관 중심의 저가 매수 기반이 형성되고 있어 전 저점의 지지력은 견고해 보인다... <코스닥시장>=지난 주 코스닥지수는 산적한 해외 악재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한 채 전 주 말 대비 8.03포인트(1.43%) 하락한 551.63으로 마감했다.

지난주 초 약세로 출발했던 주식시장이 '버냉키 효과'로 주중반 반짝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동분쟁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냉·온탕을 반복하는 미국의 금리전망, 중국의 경기과열에 따른 긴축정책 가능성 등 안팎의 악재에 휩싸인 주식시장은 여전히 의미있는 반등세를 형성하지 못한 채 하루 하루 수급사정에 따라 등락이 엇갈리는 무기력한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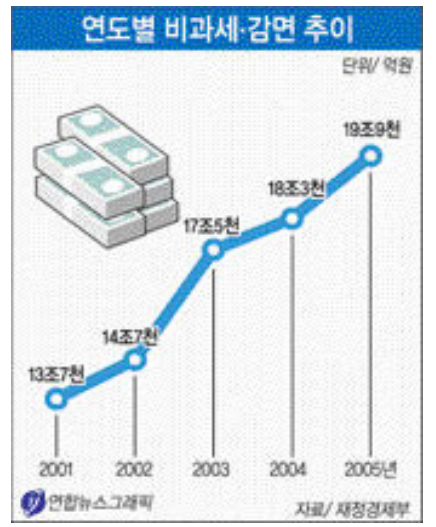
<유가증권시장>=지난 주 코스피지수는 1,255선에서 출발해 1,233선까지 되돌렸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중단 시사로 투자심리가 다소 안정되면서 1,271선으로 상승 마감했다.

다. 그러나 '버냉키 효과'가 하루 만에 소멸했다는 것은 금리 외에도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상품에 따라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거나 소폭 내렸다고 하나 여전히 70달러대에서 움직이는 국제유가, 예금 저축준비율 인상 등 중국의 긴축 움직임 등이 금리인상 중단기대감을 희석시키는 요인들이다.

리자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워더독'(Wag the dog)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기관은 여전히 적극적인 시장대응을 삼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주에도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대형 이벤트는 예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과세·감면 규모 84조원

정부, 5년간 개인·기업에 혜택



지난 5년간 정부가 개인과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감면 규모가 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 및 신설 억제 등을 통해 과세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조세저항은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적인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갈수록 늘어날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규모는 2001년 13조7천억원, 2002년 14조7천억원, 2003년 17조5천억원, 2004년 18조3천억원, 2005년 19조9천억원 등 총 84조1천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국제 대비 비과세·감면 비중이 작년과 비슷한 14.5%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해도 비과세·감면액이 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여 2001년 이후 올해까지 그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종이전표 사라진다

전자전표 서비스 본격화

앞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고객 배부용 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종이전표가 사라지게 된다. 종합 IT 서비스 기업인 LG CNS는 주요 카드사·은행·VAN 서비스업체들과 함께 신용카드 전자전표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령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온 LG CNS는 지난 3월 삼성카드 등 6개의 주요 카드사, 한국정보통신 등 3개의 밴사 3자 계약을 체결하고 1만여개의 가맹점에 신용카드 전자전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삼성 LCD TV, 세계 3대 시장서 1위

삼성전자는 시장조사기관인 NPDP와 GFK 등의 자료를 인용, LCD TV가 미국과 유럽 선진 5개국, 동남아 7개국에서 17~40% 가량의 시장점유율로 다른 글로벌 브랜드와 2~10% 정도의 격차를 보이며 세계 3대 시장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계 총수들 '긴장'

검찰 소환·노조 파업·실적 부진

재계 총수들이 최근 사법부의 강경 움직임, 노조의 불복파업, 실적부진 등 비상상황이 연달아 발생하자 직접 나서 기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소환수사를 앞둔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파업으로 곤경에 처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본사를 옮겨 당한 이구택 포스코 회장, 실적부진으로 고민 중인 구본무 LG 회장, 남북관계 경색으로 고심 중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내일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근하면서 경영에 복귀해 최근의 환율, 고유가 문제를 비롯해 노조파업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 회장은 21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발송한 e-메일에서 "그동안 일련의 사건들로 많은 걱정을 하게 해 미안하다"면서 "조기 정상화로 우려를 말끔히 씻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 세계 626위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한 세계 1천대(大) 은행 순위에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순위가 일제히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더 뱅커(The Banker)' 7월호에 수록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세계 1000대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5년말 기준 세계 순위가 51위로 전년 대비 25계단 상승했다.

1,000대 은행 발표 국민·우리·신한·농협 100대 은행에 포함

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흥과 제주은행은 신한지주에,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씨티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에 합산·공시됐다. 전북은행이 유일하게 1천대 은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도 시산한 결과 990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전 전남지사 등 9개 지사 독립사업부로 전환

운영권한과 책임 가져 한국전력의 9개 지사가 자율적인 운영권한과 책임을 가진 독립사업부로 탈바꿈한다. 한국전력은 오는 9월 서울 남파 북·인천·경기·충남·전남·대구·경남·부산의 9개 지사를 독립적인 사업부로 전환해 내부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로또복권 (제190회) 당첨번호: 08 14 18 30 31 44, 등위: 1등 6개 숫자 일치 1,784,159,450

팝콘복권 (제13호) 등위: 1등 10억 3조 333883, 2등 5억원 3조 333882

함께 일합시다. 모집분야: 임직원, 자각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대표기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